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임 옥 자 정 민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요약) 본 연구는 노인대학 학습프로그램 참여자 201명을 대상으로 학습동기유형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은 70대의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학습참여의 동기 중에서 활동지향의 동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또 그 동기는 삶의 만족도를 상당 부분을 의미 있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활동지향 동기는 삶의 만족도 중에서도 특히 자아성취감이나 자아존중감, 그리고 현실만족감을 의미 있게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 중에서 노화에 대한 태도는 학습동기 중 목표지향의 동기가 의미 있게 설명해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보다 수명이 더 연장되고, 더 건강하고, 교육수준도 더 높고, 더 활동적인 미래사회 노인들의 교육요구에 부응하는 학습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맥락에서 논의하였다.

[Key words: 노인대학, 노인학습자, 노화 태도, 삶의 만족, 평생교육, 학습동기]

이 논문은 2014년도 임옥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6174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정민 교수 앞으로 하시길 바라며, 교신저자의 e-mail 주소는 saiyoonj@gwangju.ac.kr이다.

서론

고령화는 개인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21세기“메가트렌드(mega-trend)”이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 고령화 사회는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켜 노인 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령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확대 재생산하였다(금창대, 2005; 임춘식, 2005). 한국의 2013년 9월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13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2.2%이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그리고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5세 이상 초 고령 인구 비율은 2013년 0.9%에서 2030년 2.5%, 2050년 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통계청, 2013).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비롯하여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가족 내 노인 부양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의 역할 상실과 소외, 은퇴와 정상적인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빈곤, 심지어는 노인자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선순자, 2010). 우리 사회는 노인의 문제를 건강문제, 은퇴로 인한 경제적 빈곤의 문제, 역할 상실과 긴 여가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무위, 사회·심리적 고독과 소외의 문제 등 4고(苦)를 들고 있다(장인협·최성재, 2004). 초고령사회의 100세 인류 ‘호모 헉드레드(homo hundred)’시대에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가 요구되는데, 유병, 무전, 무업, 독거, 및 무학 상태의 위험한 장수시대로 변할 가능성이 낮지 않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EBS, 2013).

따라서 노인교육은 복지차원을 넘어 평생교육차원에서 정립되어야 하는데,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유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학습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들 개인의 취향에 맞는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화정(2000)에 의하면, 노인교육의 학습활동에 따른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

노인들은 학습활동을 통하여 인식 및 행동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배움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 즉 노인대학의 학습활동과 삶의 만족도간에 상관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교육의 역할이 지대한데, 교육에 참여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는 노인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박영숙, 2003).

다시 말하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학습참여 동기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백선희, 2000), 그들의 노인평생교육 참여 동기는 배움이 즐거워서(25%) 또는 교양을 쌓기 위해(11%)라는 답변보다 여가활동차원에서(42%) 또는 인간관계를 확대하기 위해(10%)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만남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상당수의 노인들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상태로 할 일 없는 긴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은 바로 노인교육에 참여하면서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는 곧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심리적 지지를 받으면서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서문진희·조학래, 2005).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노인들에게 교육이나 인간관계의 장을 마련해줄 수 있는가? 다양한 형태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바로 노인대학인데, 노인대학의 설립목적은 노인들이 학습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폭 넓은 지식을 얻고, 취미나 여가를 즐기며, 동년배 노인들과 친교를 유지하고, 정치나 경제,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 적응력을 증진시키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하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또 배우자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이준우, 2012). 우리나라의 노인대학은 주로 종교단체나 기관 또는 일반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상당수의 교회가 노인대학이나 경로대학 등의 교육기관 혹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교회 내의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교육과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허기한, 2010).

곧 노인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는 여가 선용기회 제공, 사회적 관계 증진,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교육 및 여가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정란 · 원영희 · 박성희 · 최일선, 2009).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백선희, 2000), 노인들이 노인대학 등의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는 다양하다.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서문진희 · 조학래(2000)의 조사에서도 노인들은 노인대학 참여 이후 ‘신앙이 깊어졌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내용을 얻었다,’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무료하지 않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보고하면서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참여 동기(예: 목표지향형)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본 연구의 결과들은 수강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노인대학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노인대학

노인대학의 사전적 의미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인의 복지와 재사회화를 위해 설립된 노인중심의 교육기관이며(백선희, 2000), 법적인 정의는 노인복지법 이외에도 평생교육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에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역시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노인대학을 등록하려면 그 명칭을 노인교육기관이나 노인교육연수원, 노인 문화센터, 노인교육센터, 노인교육원, 노인교실들 중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인대학은 평생교육시설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역시 노인대학은 단순히 평생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노인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이병택, 2006), 그런 맥락에서 노인의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

사회적응을 돕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교육기간이라 말할 수 있다.

노인대학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노인대학의 역할이나 기능도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의 기능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과 관련되는데, 우선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따른 건강증진을 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학습활동 참여 자체가 동년배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소외감이나 무료함을 해소시켜준다는 점, 여가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질병이나 경제 문제 등에 대한 상담활동도 제공되므로 욕구가 충족된다는 점,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면서 가족이나 사회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증진시켜준다는 점, 그리고 취업 등으로 생산 활동을 지속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김동곤, 2008; 남기양, 2009; 이준우, 2012; 전계향, 2006).

학습참여 동기유형

성인들이 생의 후반기에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동기는 학습자 개개인의 배경이나 특성의 다양성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김애련, 2004). Knowles(1980)는 성인들이 생애역할에 따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또는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일종의 자아 성취 욕구 때문에 학습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으며, Jarvis(2012)는 성인교육 참여 동기 요인을 개인적(만족이나 보상, 흥미 등을 충족하려는 요구), 경제적(직업 재교육이나 새로운 직업에 대한 준비), 직업적(새로운 책임과 기회를 위한 훈련과 재훈련), 및 사회적(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적응) 측면의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는 대부분 Houle(1961)이 제시한 세 가지 동기유형, 즉 활동지향형(activity-oriented), 목표지향형(goal-oriented), 학습지향형(learning-oriented)의 구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권두승·조아미, 2007).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 등에 따라서 동기유형

이 다른데, 예를 들면, 남성은 직업에서의 성취목표를 비롯하여 외적 기대의 요청에 따른 동기가 강한 반면, 여성은 지적 호기심의 충족 등 내재지향성 또는 가정이나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에서의 도피 등 활동지향적인 동기 및 학습 부족감 현상에 대한 보상으로 학습지향적인 동기가 강한 편이었다(권두승·조아미, 2010; 이기환, 2003; 이내빈, 2006). 또 학력이나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활동지향이나 학습지향의 참여 동기가 더 강한 편이었으며, 활동지향적인 동기를 지닌 자들이 학습지향적인 동기를 지닌 자들보다 삶의 활력이 더 높은 편이었다(나창훈, 2006; 이기환, 2003).

한편 노인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삶에서 활력을 얻는 등 활동지향의 동기도 강하게 나타났지만,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얻는 생활만족도는 지적인 부분과 가장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김미란, 2013). 곧 교육대상자의 연령이나 성별,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에 따라서 노인들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가 동기가 다르며, 그 동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도 다르다. 그렇다면 노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수강자의 요구나 사회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진 것들이어야 수강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들의 학습참여 동기유형을 Houle(1961)에 의해서 삼분한 상태에서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와 학습참여 동기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란 일정한 목표나 욕구 달성에 대한 개인의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으로 느낌으로 성인들의 경우 자신신의 과거, 현재, 미래 등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정인숙, 2000). 고령자들은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또 더 나이가 많을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젊은 시절보다 더 밝지 못해서인지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아진다(박광희·한혜경, 2002; 배진희, 2004). 또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주거나 개인적인 성취감을 높여주는 자원봉사 활동도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었으며, 자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

신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안정성도 만족도와 관련성이 매우 높았다(김창석, 2012).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성별이나 연령, 배우자 유무, 경제상태, 종교유무, 건강정도 등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하지만, 노인대학 참여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김연, 2001). 전반적으로 노인대학에 참여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는 노인들보다 훨씬 생활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김연, 2001). 노인의 학습참여는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었으며(우채영, 2004), 학습참여자의 참여동기가 분명하고 강한 사람일수록 학습에 더 몰입하게 되어 결국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신은정,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참여 동기와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하고자 했으며, 여기에서 측정하려는 삶의 만족도는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을 비롯하여 자아감이나 노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내용이었다.

방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노인대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65세 이상 남성 49명과 여성 152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이 조사일 당시 참여하고 있었던 노인대학프로그램은 노래교실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약 49.3%, $n=99$), 그 다음으로는 요가교실 약 15.4%($n=31$), 한문교실 약 11.9%($n=24$), 한글교실 약 7.5% ($n=15$), 디지털문자 교실이 약 1.5%($n=3$), 그리고 기타 약 14.4% ($n=29$)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이 조사일 당시까지 노인대학프로그램 참여경험은 6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약 44.8%($n=90$)이었으며, 2년 이상에서 6년 미만이라는 응답 약 22.9%($n=46$) 그리고 2년 이하라는 응답이 약 32.3%($n=65$)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절반 이상이 70대(55.7%, $n=112$)에 해당되었고, 65-69세는 약 10.4%($n=21$) 그리고 80세 이상은 약 33.8%($n=68$)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인 경우가 약 21.9%($n=44$)에 불과했던 반면, 중학교 졸업이 약 14.9%($n=30$), 초등학교 졸업이 약 29.4%($n=59$),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들의 비율이 거의 $\frac{1}{3}$ 을 차지했다(약 33.8%, $n=68$). 그들의 월평균수입은 100,00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약 14.9%($n=30$), 100,000원 이상에서 300,000원 미만이 약 41.8%($n=84$), 그리고 300,000원 이상에서 500,000원 미만이 약 28.9%($n=58$)이었지만, 500,000원 이상이라는 비율은 약 14.4%($n=29$)에 불과했다.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약 39.8%($n=80$)인 반면, 없는 비율은 약 60.2%($n=121$)이었다. 또 자녀 또는 자녀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은 약 30.8%($n=62$)인 반면, 배우자와 함께 또는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은 약 69.2%($n=139$)였다. 한편 현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절대다수가 건강이라고 답했으며(약 83.1%, $n=167$), 가족은 약 4.0%($n=8$), 경제는 약 3.5%($n=7$), 여가생활은 약 3.0%($n=6$), 교육은 2.5% ($n=5$), 일자리는 2.5%($n=5$), 그리고 친구는 약 1.5%($n=3$)의 답변이 나타났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지는 30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묻는 9개의 문항, 학습참여 동기유형에 관한 12문항,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관한 9문항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월평균수입, 현재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동거가족, 학력, 노인대학 학습참여기간, 그리고 현재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학습과목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학습참여 동기 및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아래와 같았다.

학습참여 동기. 학습참여 동기는 박선향(2011)이 개발한 학습 참여 동기 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이 검사는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 및 목표지향형의 세 개 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

응답형태는 ‘전혀 아니다(=1)’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었으며, 점수(문항의 평균으로 계산함)가 5점에 가까울수록 학습참여의 동기가 더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습참여 동기 검사에 대한 내적 신뢰도 계수 α 는 전체 문항의 경우는 .876($n=201$), 하위요인에서는 활동지향형이 .833, 학습지향형이 .789, 그리고 목표지향형이 .753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이창은(2000)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장성취감, 자아 존중감, 노화 태도, 및 현실 만족감의 네 개 요인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형태는 ‘전혀 아니다(=1)’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었으며, 점수(문항의 평균으로 계산함)가 5점에 가까울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삶의 만족도 척도에 대한 내적 신뢰도 계수 α 는 전체 문항의 경우는 .876($n=201$), 하위요인에서는 자아성취감이 .758, 자아 존중감이 .693, 노화 태도가 .577, 그리고 현실 만족감이 .551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의 경우 노화 태도 및 현실 만족감의 계수가 다소 낮은 편이었다.

연구절차

설문지 자료의 수집은 2013년 10월과 11월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노인대학에 다니는 65세 이상의 노인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기법과 연구 윤리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은 대학생 5명과 첫 번째 저자가 직접 노인 1명씩 만나서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글을 읽지 못하거나 설문지 글자크기가 작아서 식별이 어려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설문지를 연구대상자에게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설문지 작성을 함께 했다. 설문지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설문지 답변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했는데, 설문지 작성까지 걸린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설문지 조사 대상자 230명 중에서 청력이 좋지 않거나 설문지 내용을 설명할 때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분이 29명이었

다. 곧 모든 문항에 대한 답변이 완료된 201명의 자료만이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되었다.

결 과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학습참여 동기유형 및 삶의 만족도 차이

성별에 따른 학습참여 동기유형과 삶의 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학습참여 동기는 활동지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8.037$, $p<.01$), 활동지향 참여 동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전체점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지만($F=5.299$, $p<.05$), 하위척도의 구분에서는 자아성취감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F=5.513$, $p<.05$).

<표 1> 성별에 따른 학습참여 동기유형과 삶의 만족도 차이

구 분			M	SD	F
학습 참여 동기	활동지향	남	3.54	.76	8.037**
		여	3.88	.63	
	학습지향	남	3.44	.72	3.474
		여	3.67	.76	
	목표지향	남	2.93	.90	< 1
		여	2.94	.88	
삶의 만족도	자아성취감	남	3.16	.91	5.513*
		여	3.51	.91	
	자아존중감	남	3.51	.98	1.625
		여	3.71	.95	
	노화태도	남	2.83	1.10	< 1
		여	2.90	1.13	
	현실만족감	남	3.20	.98	4.848
		여	3.44	.98	
	전체	남	3.17	.67	5.299*
		여	3.40	.59	

주. F비는 남성 49명 그리고 여성 152명을 근거로 구한 것임

* $p<.05$ ** $p<.01$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

노인대학 참여기간에 따른 학습참여 동기유형과 삶의 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습참여기간에 따른 학습참여 동기유형은 활동지향($F=4.406$, $p<.05$) 및 학습지향($F=3.169$,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검증으로 비교한 결과, 활동

<표 2> 노인대학 참여기간에 따른 학습참여 동기유형과 삶의 만족도 차이

구 분			<i>M</i>	<i>SD</i>	<i>F</i>
학습 참여 동기	활동지향	2년 이하	3.60 ^a	.74	4.406*
		2-6년	3.85 ^{ab}	.71	
		6년 이상	3.91 ^b	.59	
	학습지향	2년 이하	3.43 ^a	.77	3.169*
		2-6년	3.68 ^{ab}	.81	
		6년 이상	3.72 ^b	.70	
	목표지향	2년 이하	2.88	.92	2.363
		2-6년	3.18	.88	
		6년 이상	2.85	.85	
삶의 만족도	자아성취감	2년 이하	3.11 ^a	.98	7.654**
		2-6년	3.36 ^{ab}	.81	
		6년 이상	3.67 ^b	.86	
	자아존중감	2년 이하	3.39 ^a	1.09	4.043*
		2-6년	3.85 ^b	.83	
		6년 이상	3.76 ^{ab}	.88	
	노화 태도	2년 이하	2.62 ^a	1.19	3.328*
		2-6년	3.16 ^b	.93	
		6년 이상	2.92 ^{ab}	1.12	
	현실만족감	2년 이하	3.13 ^a	1.02	4.195*
		2-6년	3.66 ^b	.94	
		6년 이상	3.43 ^{ab}	.96	
	전 체	2년 이하	3.07 ^a	.59	10.631***
		2-6년	3.49 ^b	.52	
		6년 이상	3.47 ^b	.62	

주. *F*비는 2년 이하 65명, 2-6년 46명, 그리고 6년 이상 902명을 근거로 구한 것이며, 평균치에 붙은 위첨자 영문철자는 Scheffe검증의 결과임.

* $p<.05$ ** $p<.01$ *** $p<.001$

임옥자 · 정 민

지향 및 학습지향 동기는 모두 학습기간이 길수록 더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6년 이상과 2년 이하에서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노인대학 학습참여기간에 따른 네 개의 하위 척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 검증으로 확인한 결과, 전체점수에서의 차이($F=10.631$, $p<.001$)는 2년 이하보다 2년 이상에서의 차이만 드러났다. 자아성취감에서의 차이($F=7.654$, $p<.01$)도 2년 이하와 6년 이상에서만 드러난 반면, 자아존중감($F=4.043$, $p<.05$)이나 노화태도($F=3.328$, $p<.05$) 및 현실만족감($F=4.195$, $p<.05$)에서의 차이는 2-6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학습참여 동기유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3>에 제시된 바처럼, 학습참여 동기유형의 활동지향은 삶의 만족도 및 그 하위요인들과 전반적으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어서

<표 3> 학습참여 동기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학습참여 동기유형			삶의 만족도				
	활동	학습	목표	자아	자아	노화	현실	전체
	지향	지향	지향	성취감	존중감	태도	만족감	
	(a)	(b)	(c)	(d)	(e)	(f)	(g)	(h)
a	-							
b	.604**	-						
c	.391**	.492**	-					
d	.232**	.177*	.028	-				
e	.283**	.164*	.182**	.159*	-			
f	.291**	.296**	.343**	.240**	.187**	-		
g	.184**	.040	.039	.044	.439**	.061	-	
h	.396**	.278**	.229**	.664**	.656**	.609**	.554**	-

* $p<.05$ ** $p<.01$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16.4%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미했다($F=12.879$, $p<.001$). 또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오직 활동지향 요인만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beta=.348$, $p<.001$). 곧 노인대학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 유형 중 활동지향이 삶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제 학습참여 동기유형이 삶의 만족도의 하위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보며, 그 결과는 <표 5>부터 <표 8>까지 제시하였다. 먼저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이 자아성취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6.4%로 나타났으며(<표 5> 참조), 회귀모형은 유의미했다($F=4.495$, $p<.01$). 또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오직 활동지향 요인만 자아성취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beta=.212$, $p<.05$). 곧 노인대학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 유형 중 활동지향이 자아성취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8.8%로 나타났으며(<표 6> 참조), 회귀모형은 유의미했다($F=6.304$, $p<.001$). 또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오직 활동지향 요인만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학습참여 동기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상수)	1.896	.241		7.878
삶의 만족도	활동지향	.317	.075	.348	4.216***
	학습지향	.024	.071	.029	.335
	목표지향	.055	.052	.079	1.044
$R^2=.164$, $Adjusted\ R^2=.151$, $F=12.879$, $p<.001$					

*** $p<.001$

임옥자 · 정 민

<표 5> 학습참여 동기유형이 자아 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상수)	2.205	.380		5.808
자아	활동지향	.288	.118	.212	2.435*
성취감	학습지향	.121	.112	.100	1.082
	목표지향	-.108	.083	-.104	-1.307
$R^2=.064$, $Adjusted\ R^2=.050$, $F=4.495$, $p<.01$					

* $p<.05$

<표 6> 학습참여 동기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상수)	2.100	.391		5.370
자아	활동지향	.390	.122	.275	3.192**
존중감	학습지향	-.065	.115	-.051	-.562
	목표지향	.108	.085	.100	1.262
$R^2=.088$, $Adjusted\ R^2=.074$, $F=6.304$, $p<.001$					

** $p<.01$

($\beta=.275$, $p<.01$). 곧 노인대학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 유형 중 활동지향이 자아존중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이 노화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15.2%로 나타났으며(<표 7> 참조), 회귀모형은 유의미했다($F=11.734$, $p<.001$).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오직 목표지향 요인만 노화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beta=.244$, $p<.01$). 곧 노인대학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 유형 중 목표지향이 노화에 대한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

마지막으로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이 현실 만족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4.2%로 나타났으며(<표 8> 참조), 회귀모형은 유의미했다($F=2.883$, $p<.05$).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오직 활동지향 요인만 노화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beta=.253$, $p<.01$). 곧 노인대학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 유형 중 활동지향이 노화에 대한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표 7> 학습참여 동기유형이 노화 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상수)	.607	.440		1.378
노화 태도	활동지향	.234	.137	.141	1.701
	학습지향	.134	.130	.090	1.030
	목표지향	.307	.096	.244	3.203**
$R^2=.152$, $Adjusted\ R^2=.139$, $F=11.734$, $p<.001$					

** $p<.01$

<표 8> 학습참여 동기유형이 현실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상수)	2.520	.413		6.103
현실 만족감	활동지향	.370	.129	.253	2.867*
	학습지향	-.144	.122	-.110	-1.180
	목표지향	-.006	.090	-.006	-.071
$R^2=.042$, $Adjusted\ R^2=.027$, $F=2.883$, $p<.05$					

* $p<.05$

논의

노인대학에서 제공되는 학습프로그램은 노인들, 특히 교육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약자계층으로부터 벗어나 급속히 변모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준다. 본 연구는 노인대학의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핀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노인대학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참여 동기유형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먼저 학습참여 동기유형을 살펴보면, 이부일(2009)은 노인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하는 동기는 인간관계를 위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해소를 위해,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한 것 등이 가장 강한 참여 동기였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동기유형의 강도가 활동지향, 학습지향, 및 목표지향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듯이 활동지향의 강도가 강한 편이었다. 이제 연구대상자의 특성 중 성별과 학습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동기유형을 언급하고 동기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노인대학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학습참여 동기 중에서 활동지향이 더 높은 편이었으며, 삶의 만족도가, 그 중에서도 자아성취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대학 참여기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자아성취감, 자아존중감, 노화에 대한 태도, 현실 만족감 등이 모두 2년 이하인 경우보다 그 이상일 경우에 더 높았는데, 이와 유사한 결과는 김기현(2012)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 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라 그 이후로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이 긴 노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자와 강사와의 관계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노인대학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서는 활동지향의 동기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습지향이나 목표지향의 동기는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구분한 분석에 따르면, 활동지향 동기유형은 자아 성취감, 자아 존중감, 그리고 현실만족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목표지향 동기유형은 노화에 대한 태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노인대학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었으며, 여성 위주로 된 표집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쉽지는 않다는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연령 등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가 다를 것을 확인했다(김미란, 2013; 김연, 2001; 박선향, 2011; 선순자, 2010; 이부일, 2010). 중년층과 노년층의 교육요구도 다르듯이(한정란 등, 2009), 고령자들도 연령에 따라서 교육요구가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홍기형·나항진, 2002). 곧 미래사회의 노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평생교육의 요구 때문에 노인대학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미래사회의 노인은 과거나 현재의 노인보다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더 높고, 건강상태도 더 좋고, 더 활동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노인대학에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학습참여의 동기를 고려하여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두승·조아미 (2007). *성인학습 및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 금창대 (2005). 고령화 사회의 충격.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회보*, 24(1), 31-36.
- 김기현 (2012). *노인대학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외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곤 (2008). *교회노인대학 운영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아주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 (2013). *노인평생교육 참여 동기 및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련 (2004).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 성과 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 (2001). *노인대학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석 (2012). *노인자원봉사 활동 참여 동기유형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창훈 (2006). *지역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기유형과 몰입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양 (2009). *농촌교회의 노인교육에 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희 · 한혜경 (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11, 43-61.
- 박선향 (2011). 고등교육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7 (2), 65-92.
- 박영숙 (2003). 노인교육이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1, 99-121.
- 배진희 (2004).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자녀와 이웃지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197-216.
- 백선희 (2000). *노인대학의 운영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문진희 · 조학래 (2005). 교회노인대학 프로그램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회사회사업*, 3, 135-160.
- 선순자 (2010). *노인교육 프로그램 참여형태에 따른 만족도 및 활성화 방안*.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정 (2009).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배경요인 및 학습참여 유형과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인대학 학습참여 동기유형

- 우채영 (2004). *노인들의 학습 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환 (2003). *평생교육학습자의 참여 동기와 만족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내빈 (2006).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만족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택 (2006). *교회 노인대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부일 (2010). *노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비참여 요인*. 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준우 (2012).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 서울: 과란마음.
- 이창은 (2000).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정 (2000). 문화적 전환을 위한 노인교육의 새로운 과제. *평생교육학 연구*, 6 (1), 163-183.
- 임춘식 (2005).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과제 (하). 2000년 (현대사회문화연구소), 통권 271호 (2005. 11), pp. 18-23.
- 장인협 · 최성재 (2004). *노인복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계향 (2006). *고령자 취업교육 참여 동기와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숙 (2000). *노인의 원인귀속유형 및 자아존중감에 따른 생활만족감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3). *2013 고령자통계*. (<http://kostat.go.kr>)
- 한정란 · 원영희 · 박성희 · 최일선 (2009). 중년층과 노년층의 노인교육 요구. *평생교육학연구*, 15 (4), 131-161.
- 허기환 (2010). 크리스천 노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4 (2), 313-337.
- 홍기형 · 나향진 (2002). 노인의 학습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7, 51-83.
- EBS (2013).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100세 시대의 평생교육① 호모*

현드레드. (2013. 08. 26.)

Houle, C. (1961). *The inquiring min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Javis, P. (2012). *Adult learning in the social context*. London: Routledge.

Knowles, M.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and andragog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Learning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Older Adults
who Join in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Og Ja Lim Min Jeong

Department of Youth Counseling & Lifelong Education
Gwangju University
Gwangju, Korea 61743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learning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who join in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through analyzing data of 201 elderly respondents.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septuagenarian women, but activity-oriented type of learning motivation was found as the strongest motivation for their joining in the program. Also, the activity-oriented type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their life satisfaction such as sense of achievement, self-esteem, and sense of satisfaction with present life.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older adults who might have different needs in the future, such as the oldest-old group, the group of higher educational or SES level, and so on.

(논문접수일: 2015년 9월 30일)

(수정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16일)

(논문게재승인일: 2015년 11월 27일)